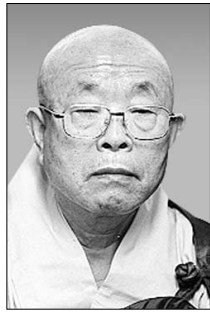


각 중단 대표 신년법어 요약  
(전문 buddhanews.com에)

# 천지에 빛 놓으니 집마다 순금의 문 열려

## 새해 새아침 시방에 영롱한 빛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아자(嗚者)는 만류군생(萬類群生)을 깨우치는 법음을 설하고 농자(農子)는 성전일구(聲前一切)를 전합니다. 이것이 새해아침에 광명이 가득하고 영롱한 빛이 시방을 머금은 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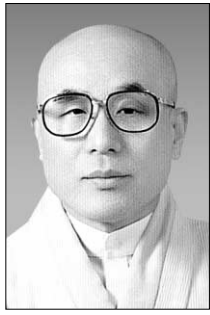
이와같은 현묘한 이치는 여러분의 눈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을 깨치려면 저 빛깔과 소리를 떠나야 합니다. 꼬꼬리는 벼를 불러 노래하고 제비는 동지를 찾아올 것이며 맑은 바람은 흰 달을 흔들고 흰 달빛은 맑은 바람 속에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혜목(慧目)이고 진리의 광명입니다. 대용현전(大用現前)하고 부존계칙(不存軌則)입니다.

졸탁(嗵嗵)의 숨씨를 지닌 사람은 부쟁(不靜)의 덕을 얻어 원음을 이룰 것이요  
말에 얽매인 사람은 재주를 팔아 어리석음을 얻을 것입니다.

천지에 빛을 놓으니 집집마다 순금의 문이 열립니다.

악(囑)!

## 동체대비의 세상 만듭시다



**운산 스님** (태고종 종정 대행)

갑신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각 계층이 희망적으로 달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지양, 척결하고 과거는 과거로서 역사에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과 자세를 갖추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과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를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보살의 이타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조절하고 또한 원용과 회통정신을 실천하여 갈등과 대립, 다툼의 병폐를 지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라는 집단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과 이웃과 국가사회를 위한 넓은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밝아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밝고 아름다운 한해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털어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자리를 비워놓는 일입니다.

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청정한 국토, 안락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나의 너' 아닌 '너의 나' 를 보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가득 찬 부처님을 봅시다. 새로운 마음의 눈을 열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집착과 대립, 독선의 어둠을 버리고 지혜의 빛으로 이웃을 봅시다. 나의 네가 아닌, 너의 나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부처님 남기신 법문은 대천세계에 가득합니다.

"미래의 부처님이며, 당신을 공경하고 찬탄합니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며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我不輕汝 汝等行道 皆當作佛)"

적멸궁 앞에는 훌륭한 경지도 많고 영축봉 꼭대기에 티끌 한 점 없애려 종일토록 방황하며 지난 일을 생각하는데 저물녘 자비의 바람이 호대에서 이네 적멸궁전다승경(寂滅宮前多勝景) 영축봉상절섬애(靈鷲峰上絕巖埃) 방황진일사전사(彷徨盡日思前事) 비모비풍기호대(湄暮悲風起孝臺)

## 세세생생 쓰고 남을 불사를



**혜일 대중사** (진각종 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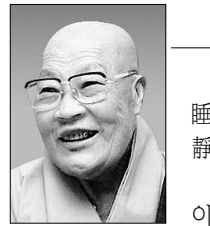
법계는 법의 일산으로 덮히우고 못 중생은 모두가 일불의 제자라. 동녘 바다에 법일이 솟아올라 창공에 들어가니, 하늘에는 구름 없고 바다는 파도 잔잔하구나.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지옥(地獄)이 사라지면 기쁨가마와 철산은 무용지물이요,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지 아니한다면 천상누각(天上樓閣)이 무너져 윤회(輪廻)의 틀이 뜬구름이 되리라.

오로지 열 손가락 모아 바라는 것은 못 중생들이 앓고도 남을 부처님의 금강보좌(金剛寶座)를 법계법신으로부터 옮겨 선악시비(善惡是非) 선후본말(先後本末)이 없는 평등한 밀엄정도를 건설할 일이다.

자심에서 우리나라는 본심의 소리 육자진언을 정진의 틀로 삼아 세세생생에 쓰고도 남을 성스러운 불사(佛事) 지을 것을 서원합니다.

## 오고 감 두려워 하지 말라



**죽산 스님** (관음종 종정)

사해량평용수안(四海浪平龍睡安) 구천운정학비고(九天雲靜鶴飛高)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면 용이 편안히 잠들고 구천의 구름이 고요하면 학이 높이 난다네. 가차사대이위신(假借四大以爲身) 항연불포어생사(恒然不怖於生死) 사대를 잠시 빌려 몸을 이루었으니 항상 편안하여 오고감을 두려워 않는다네.

## 마음의 문 열고 보살도 실천



**수성 대중사** (총지종 종정)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사천이라고 하나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허공의 말이니, 경구 한 구절 내 마음 속 깊이 있으면 팔만사천 법문이 다 내것입니다.

믿음과 실천! 그 모두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닦는 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음미반배흠!

## 절대 평등한 중도세계 이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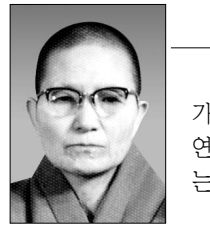


**정각 스님** (법륜종 종정)

부처님의 대지혜 금강보검만이 불의와 부정, 타락과 부패를 대광명의 전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보다 철저한 수행과 뼈를 깎는 참회로 인간의 자성을 재발견 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갑신년 한 해를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 는 보람찬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산다



**혜안 스님** (보문종 종정)

새해에는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공존·공영의 연기적 원리를 사무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허둥대며 사는 무의식적인 일상에서 깨어나 자기와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나를 찾아가는 명상과 성찰 그리고 참회의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 용맹정진 앞날 발전있기를



**동광 스님** (총화종 종정)

누겁진구 세척제(累劫塵垢洗滌除) 송구영신 혁개척(送舊迎新 革改拓) 갑신일조 천지광(甲申日朝 天地光) 용맹정진 유발전(勇猛精進 有發展)

누겁으로 싸인 때를 씻어 버리고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여 혁신하면 갑신년의 아침 해가 천지를 비추니 용맹정진하면 앞날에 발전이 있으리요

## 자기를 바로보는 해 되길



**일공 스님** (원융종 종정)

일체 만물은 하나! 내가 있기에 이 우주만물이 존재하고, 우주만물이 있기에 또한 내가 존재함을 알고 일체 만물과 개인은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히 천하가 밝아진다 했으니,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자기를 바로 보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남북통일 이뤄 함께 번영



**지명 스님** (조동종 종정)

일월이 승전하여 세월을 재촉하니 계미는 저물고 갑신이 밝아오도다.

오락와세에 새롭게 법의 수레를 끌리고 선정과 지혜로 고요히 비추어서 속세의 모든 티끌을 씻어내고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어 영원토록 함께 번영할지어다.

## 이웃과 함께하는 한 해로



**해곡 스님** (열반종 종정)

오늘의 동녘에 뜨는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며, 오늘 뜨는 달은 내일 뜨는 달이 아닙니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의 이슬이며 부귀영화는 눈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는 업장은 새해가 와도 때를 풀어야 하듯이 자비인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여 갑신년을 이웃과 함께 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대화합으로 난제들 극복



**연화 스님** (미륵종 종정)

불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오늘의 현실을 부처님의 가피로써 지난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나라의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장으로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과보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무명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다.

##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관조



**혜안 스님** (무량종 종정 대행)

지난 한 해 어리석음에 빠져 무리한 행동과 욕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내 앞에 부여된 허공무대에서 내 방식을 버리고 부처의 교시를 마음에 새겨 한 해의 삶을 계획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시로 관조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공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봉은사 보우당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 수도산 奉恩寺

조 실 석 주 정 일  
주 지 설 담 원 혜  
신도회장 우 보 안승기

봉은학림

기초학당 / 불교대학 / 연화(노인)대학 / 봉은불교문예대학 / 경전학교 / 봉은시민선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 02)3218-4800~5 / 팩스 : 02)544-2141